

잘 쉬어야 일도 잘한다 '休테크'

"어려울수록 휴가를 쉰다."
여름휴가철이 돌아왔다. 글로벌 경제체제 탓에 여름휴가 보너스가 예전 같지 않지만, 잠시 일상을 탈출할 수 있는 기대감이 높다. 기업들은 재충전을 잘해야 업무 능력이 오르고 기업 경쟁력이 향상된다는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휴가를 지원하고 있다. 휴양소·콘도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캠프·갯벌생태체험 등 다양한 가족 이벤트를 마련해 직원들의 기 살리기에 나서고 있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은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5일간 공휴일을 단는다. 앞뒤 공휴일을 합하면 최장 9일간 휴가다. 기아차는 직원들이 뜻 깊은 휴가를 보내며 재충전할 수 있도록 휴가비 30만원과 상여금 50%를 지급한다. 또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신안 증도 우전해수욕장과

휴가비 지급·휴양캠프·가족 이벤트... 지역기업들 직원들 기 살리기에 나서

하순 그린랜드 물놀이장에서 하계 여름 휴양캠프를 운영한다.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은 정부의 휴가 분산 권유를 받아들여 7월28일~8월1일, 8월14일~8월19일 두차례로 나눠 라인별로 휴가를 떠난다.
삼성전자는 연봉제여서 별도의 휴가비는 없지만, 저렴하게 즐길 수 있도록 캐리비안베이·여수 디오션 등의 할인권을 제공한다. 또 63빌딩 관공까지 상품 할인권도 지원한다.
부분 과업 중인 금호타이어는 잠시 과업을 멈추고 다음달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여름휴가에 들어간다. 워크

아웃으로 힘들지만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휴가비 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GS칼텍스 여수공장은 확실한 재충전을 위해 여름휴가를 포함한 2주간의 '리프레시 휴가'를 권장하고 있다. 광양제철소는 27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백운산 수련관과 캠핑장 등을 한시적으로 직원들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GS칼텍스는 임직원 자녀를 초청해 견학프로그램인 '엄마아빠, 사랑해요'를 운영한다. 또 휴가 격려금으로 회사 상품권을 제공하고 여수엑스포

관광권도 지원한다.
광주은행은 완도·변산·지리산·대천 등에 하계 휴양소를 무료로 운영, 직원들의 여가생활을 지원한다.
광주신세계는 임직원은 물론 협력업체 직원들까지 이용할 수 있는 복리후생관 사이트를 운영해 동반·유류 등 여행상품을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제공한다. 또 금호·송원·한화·대명 등 전국의 유명 콘도를 회원가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휴가비 40만원을 지급하고, 금호·한화·대명 등 전국의 유명 콘도 7곳에서 숙박할 경우 숙박료(1인일)의 50%를 지원한다. 또 롯데월드 자유이용권(1인당 4만원)을 60%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입주기업 100% 원하면 분양 적극 검토"

정부, 평동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료·규제 해법찾기 나서

국회사 현안 간담회

정부가 광주 평동산업단지 내 외국인투자지역의 임대료 인상 및 규제(광주일보 7월3일자 1·3면)와 관련, 해법 찾기에 나섰다.
25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갑)에 따르면 지식경제부·광주시·한국산업단지공단·평동의투자지역경제자협의회의 대표들은 국회의 원외관에 '평동의투자지역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의원은 "외투기업들이 외국인투자지역에서 경영을 시작하게 된 것은 기업 편의를 고려한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며 "하지만

이제는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인상 등으로 정책적 배려는 사라지고 투자비용 유지 등 온갖 족쇄만 남아 이전도 못하고 투자도 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족쇄를 풀고 기업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입주기업들의 매도 청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강성천 지식경제부 투자정책관은 "평동의투자지역 입주기업 전체가 공방부지 분양을 희망할 경우 분양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입주기업 전체'라는 전제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지경부, 광주시, 한국산업단지공단, 외투지역협의회, 김동철의원실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

포팀을 구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또 "외국인투자지역 제도는 처음엔 기업들에게 좋은 기회가 됐지만 이제는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족쇄가 됐다"며 "앞으로 지경부에 지속적인 분양을 촉구함과 동시에 관련 법 제정을 추진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강성천 지식경제부 투자정책관, 홍진태 광주시 투자고용국장, 한국산업단지공단 정인화 투자창업실장·이현수 호남권본부장, 박만수 평동 외국인투자지역 경영자협의회 회장 등 모두 17명이 참석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생활고에... 상반기 금융민원 크게 늘어

금감원 광주지원 2808건, 작년보다 15% 증가

올 상반기 중 금융감독원 광주지원(전주 출장소 포함)에서 처리한 금융민원이 전년 동기대비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감독원 광주지원이 내놓은 '2012년 상반기 중 금융 상담 민원 동향'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처리한 금융민원은 모두 2808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374건(15.4%) 증가했다.
이 가운데 상담민원은 1325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49건(10.1%) 감소했으나 서류민원은 1483건으로 523건(54.5%) 대폭 증가했다.
서류민원이 대폭 증가한 것은 금융 위기 이후 경기침체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보험계약을 해지하면서 납입보험료 전액 환급 요구, 대출금리 조정과 연체이자 감면 요구, 채권추심 불만 등 생계형 민원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

됐다.
서류민원 가운데 은행민원은 373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18건(46.3%), 비은행민원은 323건으로 89건(38.0%), 보험민원은 782건으로 313건(66.7%) 각각 증가했다.
은행·비은행 민원 가운데 대출금리 조정요청, 중도금 대출 상환 유예, 채권추심 불만 등 대출 관련 민원이 47.0%(327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예금계좌 부당 개설 등 예·적금 관련 민원 96건(13.8%), 신용정보 82건(11.8%), 신용카드 56건(8.1%), 담보·보증 51건(7.3%) 등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보험민원의 경우 상품설명 불충분, 자필서명 미이행 등 보험모집 관련 민원이 428건(54.7%)으로 가장 많았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코스피 끝모를 추락

국내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유급재정안정기금(EFSF)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유로존 재정위기 우려로 25일 코스피지수는 24.62P(1.37%) 내린 1,769.31로 장을 마쳤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외환은행 본점 달림로 모습.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유급재정안정기금(EFSF)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유로존 재정위기 우려로 25일 코스피지수는 24.62P(1.37%) 내린 1,769.31로 장을 마쳤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외환은행 본점 달림로 모습.

지역 소비자들 "하반기도 경제 어렵다"

소비자심리지수·경기전망CSI 전달보다 하락

광주·전남 지역 소비자들은 올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도 경제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25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발표 '2012년 7월 광주·전남 지역 소비자동향'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경제 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는 101로 전달보다 3포인트 하락했다.
7월 중 현재의 경기상황을 판단하는 현재경기판단CSI(소비자동향지수)는 기준치 100에 크게 못 미치며

전달보다 3포인트 하락한 69에 머물렀다. 또 조사 시점부터 6개월 후의 경제상황을 예상하는 향후경기전망CSI도 전달보다 4포인트 하락한 77에 그쳤다.
앞으로의 경기에 영향을 주는 주된 요인으로 유가 등 물가수준(51%), 수출·환율 등 대외요인(22%), 주식·부동산 등 자산의 가치(9%), 고용사정(9%) 등을 꼽았다.
6개월 후의 취업기회전망CSI(80→83)는 전달보다 3포인트 상승했고, 6

개월 후의 물가수준전망CSI(135→134)는 1포인트 하락했다.
이밖에 6개월 전과 비교한 현재가계저축CSI(94→90)는 4포인트 하락, 현재가계부채CSI(107)는 전달과 동일, 6개월 후의 가계부채전망CSI(100→106)는 6포인트 상승, 6개월 후의 주택·상가차지전망CSI(102→98)는 4포인트 하락 등을 기록했다.
CSI는 기준치인 100을 넘으면 낙관하는 소비자들이 더 많다는 뜻이고 100 미만이면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더 많다는 뜻이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경실련 "사조그룹, 화인코리아 M&A 즉각 중단하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사조그룹의 화인코리아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24일 성명을 통해 "사조그룹은 계열사인 에드윈플러스를 통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화인코리아의 채권을 구입해 알짜 중소기업을 탈취하려고 한다"며 "편법적인 중소기업 탈취행위를 중단하고 화인코리아의 회생인가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또 "에드윈플러스는 서울 강동구 한 PC방과 동일한 주소를 사용하는 유령회사로 자본금도 1억 5000만원에 불과한데 화인코리아의 채권단 채무를 185억원이나 인수했다"며 "회생인가 동의의향서에 날인까지 한 사조그룹이 화인코리아의 채권을 몰래 사들여 회생인가에 반대하고 채권자의 권익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워 법원에 파산을 주장하는 것은 사기행위"라고 주장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코스피지수	1,769.31 (-24.62)
코스닥지수	454.72 (-13.56)
금리 (국고채 3년)	2.78% (-0.05)
원·달러 환율	1,151.20원 (+5.10)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진아건설 '리채시티' 모델하우스 27일 오픈

진아건설이 상무지구에 도시형생활주택 '리채시티'를 분양한다. '리채시티'는 지하 2층~지상15층 규모로 도시형생활주택 297가구, 오피스텔 90호 등 총 387가구 소형형

위주로 구성됐다. 진아건설은 27일 광주시 서구 관촌동 신세계백화점 뒤편에 모델하우스를 오픈한다. 문의 062-374-0000.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코스피 끝모를 추락

국내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유급재정안정기금(EFSF)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유로존 재정위기 우려로 25일 코스피지수는 24.62P(1.37%) 내린 1,769.31로 장을 마쳤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외환은행 본점 달림로 모습.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특허청 서비스표등록 제41-0187289호

150여가지의 즉석메뉴(샐러드, 양식, 일식, 중식, 한식)를 온 가족이 마음껏 취향에 따라 드실수 있는 즉석 프리미엄뷔페!!

가격안내 (이용시간: 11:30~22:00)
● 평 일 성인(중학생이상) 25,000원
● 토·일·공휴일 성인(중학생이상) 29,000원

각종 모임 및 행사예약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
● 돌잔치, 피로연, 회갑연, 칠순연, 세미나 | ● 출장뷔페, 도시락

예약문의 062)671-1199 |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층

24시 유·스퀘어사우나

각종 편의시설 수면실(침대) · 인터넷 · 안마기 · 세션 · 세화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전화 062) 352-4455 | 터미널 주차장 2시간 무료

비세는 아파트옥상 · 슬라브 주택 · 빌라 · 공장의 희소식

www.phjibung.com

고질적인 슬라브지붕 누수 방수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가?

공정전 시공후

국내최초 특허출원번호 69701호

슬라브 방수 강판 시공법 개발

1. 비가 한방울도 콘크리트에 들어가지 않는다.
2. 겨울엔 연료가 최소 30% 정도 절감된다.
3. 여름에는 에어컨이 없어도 시원하다.
4. 슬라브 형태를 그대로 보존하고 방수는 최소 50년 이상이다.
5. 창턱대, 벽대 건조대로 사용할 수 있다.
6. 고추는 땅에서 열리는 것보다 3~4배 더 잘잡힌다.
7. 화학적인 방수제를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적인 강판과 목재로만 완벽하게 방수 시공한다.
8. 강판비대이 더러워지지 않는다.
9. 반영구적이다.
10. 슬라브 배수구를 100미터라도 다시 틀어서 틀어막아야 원활하다. ※ 상기 특허 등록 및 기타 등록비용이 별도 과금조치 할 수 있다.

단한번의 공사로 40~50년 보장하는 특수 방수 시스템

2차에 우리측사의 온도가 33도였는데 이정도 온도라면 집안에서는 못견딜정도인데 지금은 시원하고 선풍기 없이도 생활해도 배수도 1000리터로 새로 뿜었기 때문에 아무리 폭우가 와도 물받이엔 걱정이 없습니다. - 황금국 -

방수를 한 것이 방져져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던 방수처리도 완벽하게 되고 슬라브 지붕도 그대로 보존되는 이중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방 양구제이나 시공을 했을때 역시 슬라브 지붕새는다는 강판이 최고입니다. - 임봉준 -

슬라브 강판을 한지 4년이 되었음에도 색도 안변하고 여름에 들어서 일하고 돌아오면 칠푼듯 선선하니 시원하고 선풍기 안들어도 되고 겨울에는 외출이 많고 연료비도 기름 두 드릴 넣어 놓으면 전보다 3~4달 넘으니 연료비가 절감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 성순용 -

한농 칼라강판 지붕개량 문의 061)335-8842 / 010-4024-4005